

여름호

2018. Jun
No. 017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경북 교육행정

의명종

6.13.

소중한 한표 삶이 바뀐다

꼭!! 투표하세요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한표 한표가 모여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 6월 1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DMZ

비무장지대

DMZ / 김윤호

보라! 보아라!
인간의 손길을 벗어난 저 자유를!

팽팽한 긴장에도
고라니는 젖을 물리고

넘나드는 강물은
상념을 집는다

겹겹 철조망을 마주하며
얼마나 많은 청춘을 저기 묻었고
얼마나 깊은 미움이 거기 서려있는가!


푸른 별 지구에 한곳뿐인 DMZ

녹슨 철조망을 녹여
끊어진 大韓의 철로를 다시 잇기까지
DMZ를 집어 두고 평화를 이야기 하지 말자!

DMZ 여! DMZ 여!
어서 어서 너의 터를 넓혀라

이 세상 모든 땅이 DMZ 되도록...

CONTENTS

- 
- 2 권두시
DMZ / 김윤호
 - 4 성명서
2019년 노동절!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 개최 기원
공무원 노동권은 인간 기본권이다!
 - 5 노사협의회 결과
2018년 1/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 6 노조소식
경상북도교육감후보 교육정책 질의 및 답변
● 제13회 경북교육행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제72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 학교조직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참석
 - 15 학교행정실 법제화
학교행정실 법제화가 곧 공교육 강화
 - 16 알아두면 좋아요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별소비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18 문화소식 / 신간도서(베스트셀러)
 - 19 우리도 예술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주무관 / 우성한
 - 20 조합원 칼럼
아들아~ 잘하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 / 영주교육지청 주무관 김정희
아침에 보이는 소리 / 경산중학교 주무관 윤현미
 - 22 생활백과 / 여름철 걸리기 쉬운 질병
 - 23 함께해요



통 권 제17호 발행인 김종기 위원장 발행일 2018년 6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054-805-3981
편집위원 서종철 김태균 최정연 신영찬 김진수 정원상 김성은 박달원 배용호 이제복 정정옥
전현철 박나연



성명서

2019년 노동절!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 개최 기원

우리 한민족 미래를 언약한 4·27 판문점 선언은 반만년 역사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100만 공직 사회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번 회담과 선언을 온 맘으로 환영하며 공무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또한 절감한다.

공노총은 기쁨의 눈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 조국을 꿈꾸면서 아울러 오늘의 엄중한 현실에 두 발을 딛고 더욱 건실한 태도로 임할 것이며, 오늘의 직무에 충실하며 내일의 통일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을 다짐한다.

이번 4·27 선언은 실제적 내용을 다수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고, 특히 선언문에서 각계각층의 협력·교류·왕래·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한 부분을 보면서 2019년 노동절은 판문점에서 남북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기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공노총은 남북의 신뢰와 협력 증진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고 온 국민과 함께하는 공노총이 될 것을 천명한다.

공무원 노동권은 인간 기본권이다!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날'이다.

128년 전 오늘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다. 그리고 그 날의 비극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단체는 5월 1일을 노동절(메이데이)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돌아보자. OECD국가 중 노동시간 1위, 자살률 1위, 사교육비 부담, 사회복지 수준 최하위 등 모든 불명예를 수년간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려 하는 시도와 친 노동정책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외면했던 노동자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기에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2006년 대정부교섭'을 통해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노동절에 휴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라고 공노총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 어떠한 연구한 흔적이나 검토 내용을 공유한 적이 없다.

정부는 매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으로 '저녁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민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겠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노동절의 의미를 일 년에 한 번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인식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노동기본권은 기본권이며 노동자의 천부인권이다. 정부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될 성격의 기본권이 아니다. 공무원노동자가 없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만을 강조하기에 앞서 공무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먼저 인정하기 바란다.

2018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안 건	노조 요구 사항	교육청 협의 내용	부 서
'17년 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근무 제도 개선 (대체 휴무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여성 공무원 및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직근무 면제 - 대상 : · 임신 후 부터 출산전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범위내 - 본청 : 2018. 7. 1.시행 예정 -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 안내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 본청 : 4월부터 시행 • 교육지원청에 유연근무제 활용 안내 시달 ※ 학교는 유연근무제 실시 불가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직렬 근무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시달 - 조리실 냉방시설 및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등 환경개선 추진 - 조리종사원용 컴퓨터 등 사무집기류 배치 권장 •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조리원 사무공간 확보 	체육건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정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행정실장 학교의 실제 운영 여건을 고려한 정원 조정 ◎ 시설관리직 정원을 학교 규모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조정 - 초·중학교 1명씩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특성(급식소, 통학버스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 검토 • 시설관리직 정원 배치시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 조정 하는 방안 검토 	행정과
소수직렬 근무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직렬에 대한 운전자 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에 대한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도록 학교에 안내 	학교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운전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개인이 유사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도록 지역별 로 인력풀 제도 추진 방안 검토 	학교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소 단기 근로자 (배식, 설거지 업무)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인원별 조리원 배치기준의 경계에 해당하는 학교 실태를 조사하여 시행 여부 검토 	체육건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직렬 업무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업무 및 안전내용이 포함된 연수를 운영하겠음 - 학교에 근무중인 경력이 많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직렬 표준업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분장 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의견수렴 및 교육부의 시설관리직렬 직무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 검토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직렬에 대한 사택 우선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립사택 배정 후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재무정보과
맞춤형복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보험료 인하 ◎ 맞춤형복지점수 상향 조정 ◎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복지 기본 점수(500점 → 600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행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발령으로 이사할 경우 "공가"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는 '공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은 동일 행정구역내 에서 전보 발령이 이루어지므로,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원격지 :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 	총무과
교육실무직 급여 처리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실무직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실무직 직종, 임금체계 등이 상이하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교육실무직 인건비 지급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교육실무직 인건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불가함 • 향후 타시도 사례를 조사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학교지원과
여비 정산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조례 개정을 통한 여비정액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임 및 숙박비 정산 권고 	총무과

선택 :: 6.13지방선거

경상북도교육감후보에 듣는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지부 및 본청지부 조합원 약4,00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며, 공무원 기본권 확보와 공직문화 개혁을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권익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노조의 연합체 노조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6대 김종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입니다. 새로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교육감 후보로서 정책방향과 교육에 관한 소신을 게재하여 노조원의 후보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문경구 후보님은 답변자료가 없어 부득이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계재는 가나다 순>



안 상 섭 후보



이 경 희 후보



이 찬 교 후보



임 종 식 후보

1. 공무원 노사관계

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노조에 대한 관점과 향후 경북교육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섭 후보 "행복동행파트너십"

이경희 후보 본인은 오래 전부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해 오고 있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원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

이찬교 후보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관련 모든 노동조합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저는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노동조합과 소통 하고 노동조합이 교육 및 교육행정 정책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감 직속기구로 '가칭'경북도민교육회의' 를 신설해 교직원, 학부모, 시민사회노동단체, 지역주민이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후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버팀목입니다. 저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동조합으로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북교육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노사상생 대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국 최대 단일 노동조합인 경북교육노조가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무원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사문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2. 경북교육노조와 교육감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행정조직 문화개선 사업의 혁신 로드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등 경북교육노조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계획인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섭 후보 수시 간담회로 소통의 기회장 만들기

이경희 후보 경북교육노조와 교육감과의 만남이 떼우기 형식의 관행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경북교육노조의 결집된 의견이 경북교육정책 및 인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파트너 관계를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정기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찬교 후보 경북교육노조를 비롯한 교직원 관련 모든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또는 정책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해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후보 경북교육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추진되는 노사협의회와 간담회가 정례화 되고 실제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 이러한 협의회와 간담회와 더불어 현장의 교육행정공무원과 만나는 행사를 실시하여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라며, 기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의 미흡한 부분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에 공무원노동3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활동보장을 위해 정치권을 통해 민간노조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 제도(TIME OFF)를 공무원노조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허용과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섭 후보 실시

이경희 후보 기본적으로 정부부처에서 공시된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준수할 계획이다. 경북교육노조에서 노조 활동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도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적용 범위, 적용 시기 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전향적으로 대처하겠다.

이찬교 후보 노동3권이라고 말하는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하나로 묶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노동기본권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단결권과 교섭권에도 제한이 있으면서 단체행동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기본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법률로 보장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이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임종식 후보 노동 3권은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이고 헌법적 가치입니다. 현재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제한적인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저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 도입은 일반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노동자와 별개 법률로 운영되고 있어 공무원이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인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I.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로조건 개선

1. 경북교육청은 해마다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정부 주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위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일선 교육현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의 평가중심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교육감이 된다면 어떤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싶으십니까?

안상섭 후보 평가제도 개선 및 폐지

이경희 후보 평가중심의 교육정책은 교육본질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형식화하고 현장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 본질에 반하는 교육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평가 중심의 교육 정책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북교육노조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 정책으로 개선하겠다.

이찬교 후보 경북교육청의 교육 및 교육행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북교육청은 우수한 평가 성적을 목표로 주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경북교육의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우수한 평가 성적이 아니라 진정한 경북교육 발전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종식 후보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평가는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피드백이 되어야지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금까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경북교육의 우수한 점은 널리 알려지고 우수한 교육을 펼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경북 교육의 우수한 점을 널리 알리고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할 것입니다.

2. 경북교육노조는 창립 초기부터 행정실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교조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반대로 소관위에 계류 중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원단체가 행정실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섭 후보 실태파악후 긍정적으로 검토

이경희 후보 헌법 제 96조는 행정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있다.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는 행정실을 설치하여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교육노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교원단체 간의 진지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조직 법제화가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찬교 후보 한국교총이 학교에서 교직원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행정실법제화에 반대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실의 법제화는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 이므로 한국교총의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실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행정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구성원인 행정실 직원의 업무에 대한 법적, 합리적 근거를 만들고 행정실 직원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학교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실 직원이 학교자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식 후보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공무원은 교원과 더불어 교육을 뒷받침하는 두 축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교육행정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실의 법제화는 올바른 교육행정의 발현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반대가 교원단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수는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실 법제화를 응원하며 행정실 법제화가 교육행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3. 사회가 고도화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경북교육청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실질적인 증원이 이루어 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공무원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는 지방부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섭 후보 적절한 예산 범위 내에서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함.

이경희 후보

- 인건비 예산의 총액 한도 내에서 조직, 인사, 인건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정책의 품질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제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공감한다.
-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 및 결원 보충 인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경북교육노조를 비롯한 유관 단체, 학계의 자문을 받아서 교육부 및 관련 부처의 입법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찬교 후보 공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 정책으로 학교 행정실의 단위업무는 늘어났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근거 없는 공무원 정원 5% 삭감 이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근거 없이 삭감된 정원 5%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폐지하고 교직원(공무원, 교육실무직원, 교원)의 정원 운용과 관리가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교육감협의회에 핵심의제로 만들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후보 사회가 복지 사회로 이동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으로 정원이 동결되고 정원 이하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원보다 적은 수를 운영하고 있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총액인건비제의 폐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자치정부는 10% 이상 증가 하는 동안 오히려 교육기관은 10% 정도 줄어 교육행정 공무원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가에 긍정적인 생각이며 교육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4. 경북은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업무는 갈수록 전문화·복합화되고 새로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아무리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나홀로 행정실장 업무과중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상섭 후보 증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함

이경희 후보

- 경북의 특성상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나홀로 행정실장의 과중한 업무는 반드시 해소해 주어야 한다.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학교가 있는 지역교육청에 일반직 공무원을 증배정하여 해당 학교를 순환 지원하는 인사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

• 나홀로 행정실장 근무 기간을 최소화하여 인사 이동에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근무 수당 지급 방안을 모색하겠다.

- 이찬교 후보**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북지역 실정으로 인해 나홀로 행정실장의 해소가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병설유치원의 행정직원 별도 정원 확보 등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홀로 행정실장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지원인력을 상시 배치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임종식 후보** 지난 10년 간 학교 현장에는 10% 정도 인원이 줄어 교육행정 공무원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는 나홀로 행정실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행정공무원의 근무여건은 열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홀로 행정실장은 아파도 아프지도 못하고 휴가도 가기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및 소규모 학교의 교육행정공무원의 정원 증가를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하고 또한 가능한 모든 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과거의 공직사회는 행정직이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직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에는 시설, 공업, 사서, 전산, 보건 등 다양한 기술직 지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직은 대부분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정원 및 인사 등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공사와 정보화업무 등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직 우대 정책과 소수직렬 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상섭 후보** 인력충원이 필요함
- 이경희 후보** 일반직 지방공무원 대비 기술직 지방공무원의 기본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공감한다. 각급 학교,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도 기술직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직 인력을 충원하고 승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수 직렬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인사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이찬교 후보** 학교 시설공사와 정보화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직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분석을 통해 기술직의 정원을 확보하고 승진 인사 등에서 차별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종식 후보** 현재 교육의 사회적 당면과제는 안전한 교육환경이고, 미래 제4차 산업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자연적인 환경(지진, 미세먼지 등) 및 시설 환경(석면, 급식, 보건)에 대비하는 전문적 공무원의 적절한 배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필요한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며,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직 공무원의 적절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은 급별 및 규모에 따라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관리, 교육실무직원 노무관리 등 중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행정실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즉, 교장과 교감이 학교 급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행정실장을 6급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상섭 후보** 찬성함
- 이경희 후보** 각급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초·중등으로 자격을 구분하고 있다. 행정실장의 경우 일률적으로 6급 이상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학교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6급 이상을 배치하는 인사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이찬교 후보** 공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 정책으로 학교행정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실장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6급이상의 직급을 행정실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인력수급 및 정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정실장을 6급이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분석과 교육감협의회의 협의 등을 통해 각급 학교 행정실장의 직급 상향조정 방안을 찾겠습니다.
- 임종식 후보**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 우수한 교원의 배치와 마찬가지로 교육행정공무원도 우수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수와 능력 간의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경험은 원활한 학교 현장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규모 학교라도 다양한 경력을 겸비한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학교 현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은 실제 유치원업무를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수당을 받고 있는 교장 및 교감과 달리 관련 수당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국정감사 시 소관위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공무원이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안상섭 후보** 겸임수당포함

- 이경희 후보**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지원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업무량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 공립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 교장과 교감에게는 병설유치원장, 원감을 겸임하도록 인사 발령을 하고 있으며, 겸임 원장, 원감은 유아 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 이찬교 후보** 국가공무원의 보수를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겸임수당의 지급을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로 지급 금액과 범위를 정해 국가공무원인 교장과 교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겸임수당의 지급을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등의 규정이 없더라도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따라 보직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방 공무원의 유치원 겸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겸임수당)의 규정을 근거로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을 명시한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학교에 시달함으로써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 위 방법으로 유치원에 별도 행정인력이 배치될 때까지 유치원 겸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 후보** 경북교육노조가 주도하여 행정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지방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법률에 의해 구성되어 겸임수당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수당 지급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건의하고, 겸임수당 지급에 관하여 경북교육노조와 협의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14년 부터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를 500점(50만원 상당) 배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공무원 및 일반지자체 공무원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신규 공무원일 경우 기본항목의 단체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자율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맞춤형복지비를 인상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안상섭 후보** 찬성함
- 이경희 후보**
 - 맞춤형복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의 분야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 맞춤형복지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 지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 금액도 국가공무원 및 일반지자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찬교 후보** 국가공무원이나 일반지자체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의 맞춤형복지비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10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후생복지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한 5개 이상의 교육청도 후생복지조례가 있습니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해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복지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통해 교육실무직원, 지방공무원, 교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의 근거를 만들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 후보** 공무원에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인 경북도청의 경우 경북교육청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경북교육청 소속 3만 교직원에게 일괄 적용하다보니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4년 인상이후 변동이 없어 유감이지만 적절한 재정적 편성을 고려하여 복지제도(휴양시설, 의료제도 등)가 다양화될 수 있는 방법을 펼쳐 보겠습니다.

9.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연과 지연, 정실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능력위주의 인사, 적재적소 인원 배치, 순환 보직제 활성화, 능력 있는 인재 발굴 등 혁신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떠한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실 계획입니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상섭 후보** 공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 이경희 후보**
 - 경북교육의 성패는 학연과 지연, 정실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능력위주의 인사, 적재적소 인원 배치, 순환 보직제 활성화, 능력 있는 인재 발굴 등 혁신적인 인사제도에 달려 있다.
 -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on-off 라인으로 인사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

이찬교 후보 인사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해야 공무원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인사 결과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신이 많으며 내부 청렴도평가에서 인사부분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능한 인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원에 준하는 정도로 세밀한 표창, 승진, 전보의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표창, 승진, 전보에서 도교육청 근무자가 우대를 받고 있어 학교근무자는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업무량이 많아 전입하려는 공무원이 없으므로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도교육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을 포함하는 완전한 순환근무제 실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식 후보 인사는 모든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이고 체감하는 밀접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꼭 실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함께 단일화를 이룬 후보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상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경북의 여건에 적합하고 교육을 우선시하는 인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적재적소 인사 및 인재 발굴 등은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 교육이 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10.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들의 행정 업무 경감은 행정실의 업무 증대로 귀결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교직원 행정 업무 경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섭 후보 찬성함

이경희 후보

-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은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행정실의 업무 부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교원 행정 업무 경감 정책을 교직원 행정 업무 경감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찬교 후보 교원들의 행정업무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하위 행정기관으로 여기고 불필요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만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 기관의 불필요한 공문시달을 막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없애 교직원 모두의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학교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정상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식 후보 학교 현장은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두 수레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시스템입니다. 과도한 업무 경감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여 절대적인 업무량의 감소를 유도해 낼 생각입니다. 교원 업무경감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교육실무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업무에 대하여 풍선효과처럼 추진하지 않고 업무 효율화 전산화를 추진하여 업무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의 한축인 지방공무원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있습니다. 교원위원을 지방공무원이 포함된 교직원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안상섭 후보 찬성함

이경희 후보

-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을 비롯한 지방교육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 간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한축인 지방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는 법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

이찬교 후보 진정한 민주주의는 직업, 종교,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 외의 직원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교육감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선정해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임종식 후보 학교 구성원은 그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때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의 행정실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운영위원이 아닌 행정요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실장이 학교장과 같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여 간사직을 수행하는 것도 교직원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민이나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제13회 경북교육행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이 후원하고 경북교육청이 주최한 제13회 경북교육행정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2018. 05. 12. 금오공고 운동장에서 조합원 약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기종목은 날씨관계로 윗놀이, 단체줄넘기 등 2개 종목을 본청을 포함한 24개 시·군교육지원청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결과 종합 1위는 울릉교육지원청, 종합 2위는 영덕교육지원청, 종합 3위는 성주교육지원청이 받았다.

경기에 앞서 이영우 교육감은 대회사에서 “우천중이라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지 못하지만 각 지부 부스에서 서로 소통하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 고 하였으며, 이어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하루 그동안 쌓여 있던 스트레스 다 날리고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며, 경북교육노조

는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조합원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노조로 거듭나겠다” 고 하였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전우홍 부교육감과 행정지원국장, 교육정책국장, 본청 과장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백승주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23개시군 교육장, 행정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7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경북교육노조는 연말에 개최될 소년소녀 가장돕기 행사를 위한 모금 운동으로 대회를 더욱 의미있게 하였다.





제72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8. 04. 09. 영천교육지원청에서 김종기 위원장 및 노조 상임위원 2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차 정기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상임위원회는 △2017년 경북교육노조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에 관한 건에 관한 건 △한마음 체육대회 기념품에 관한 건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건 △노조차량 임대에 관한 건 △기타 노조 현안에 관한 건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4월 모든 만물이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는 계절을 맞이하여 경북교육노조 임원들도 봄의 따뜻하고 싱그러움을 간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늘 좋은 향기를 지니는 간부로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인사 말을 대신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017년 경북교육노조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에 관한 건에 관한 건 △한마음 체육대회 기념품에 관한 건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건 △노조차량 임대에 관한 건은 집행부에 위임 처리하기로 승인 되었다.



학교조직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참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8. 05. 02.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경북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등 공무원제단체가 주관하여 개최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는 “학교행정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무실과의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상수 학교혁신정책과장은 “학교행정실이 법적존재로서의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학교의 갈등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제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은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 대표, 문화상의원, 노웅래의원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였으며, 교육청노조 소속 단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제단체 조합원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가졌다.

학교조직 법제화는 경북교육노조가 출범당시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그동안 상급단체와 함께 끊임없이 교육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면서 요구하여 왔으며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경북교육노조는 학교조직법제화가 이루어질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학교행정실 법제화가 곧 공교육 강화”

“현재 각급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조직(행정실)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행정실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에 교육청 3개노조가 뜻을 같이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수미)·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3개노조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의원실과 함께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행정실 법제화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교무실과의 업무구분 불명확이 가장 큰 문제”

발제자로 나선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학교행정실과 관련해, 행정직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둘 수 있지만, 행정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어 법치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이 학교행정실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들은 행정실 운영 관련, 교무실과의 업무구분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행정실 법제화 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교무업무와 행정업무의 구분 명확, 고유 업무의 원활한 수행가능, 교원으로 부터 독립된 역할 수행 가능, 책임행정체제 구축 가능 등을 꼽았다. 박교수는 특히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학교행정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교육부 “학교구성원 문제 넘어 교육수요자 중심에서 보자”

발제에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과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권정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정책국장, 진영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노선경(성남여자중학교 행정실장), 하병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4명이 나서 행정실 법제화의 필요성과 학교민주화에 대해 토론했다.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정책과장은 발언을 통해 “법적존재로서의 체계를 갖춰야 되고 학교의 갈등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제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관련연구를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유은혜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식 원내대표, 문희상 의원, 노웅래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육부, 전교조, 3개 노조 소속 지방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학교행정실 법제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2018. 5. 2.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한눈에 보는 2018년 시행 개정세법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 소득세 분야 포함)

(단위 : 억원)

안 건	개정 내용	세수효과 (NABO추정)	최근 개정 연혁
소득세율 인상	과표 3억원~5억원에 대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시 40%에서 42%로 인상	('18) 4,044 (연간) 9,761 (누적) 48,803	('14) 3억원~1.5억원 38% ('17) 5억원초과:38%→40%
자녀세액공제 축소·정비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폐지 - (1인당 15만원, 6세미만) '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6세이하 추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8) - (연간) 2,740 (누적) 10,960	('14) 세액공제 전환 ('15.5) 6세이하 추가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신설('14년 귀속소득부터 소급적용)
종교인소득 과세	-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 종교인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단 종교활동비 과세대상 제외, 세무조사 기준 완화 등 시행령개정 병행)	추정근란	('15) 과세 명문화, 시행은 2018년 예정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25%, 단 중소기업에한해 1년 유예 - 대주주 범위 확대: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축소 예정	('18) 970 (연간) 3,318 (누적) 16,588	- 세율인상: ('16)대주주보유 중소기업 10→20% - 대주주 확대:('13.7.) 2%/50억원 ('16.4.) 1%/25억원 ('18.4.예정) 15억원 ('20.1.예정) 10억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1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20%p	추정근란	('04) 다주택자 종과세 부과 ('09) 종과세 한시적 완화 ('14) 종과세 폐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근로장려금 인상(77,185,230만원→85,200,250만원) - 대상자(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외국인 포함 등) 확대 - 종교인소득의 신고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	('18) -1,411 (연간) -1,296 (누적) -6,479	('14) 2017년(지급연도)까지 연령요건 단계적 완화(60세→40세) ('17) 지급액 상향:70/170/210만원→77/185/230만원 ('18) 연령요건 완화(40세→30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혜택 확대 등	이자소득 등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에 한하여 인상(200/250만원→400만원)하고 중도인출 허용	추정근란	('16) 신설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	('18) - (연간) -69 (누적) -276	('10) 소득공제 신설 ('14) 세액공제 전환(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단위 : 억원)

안 건	개정 내용	세수효과 (NABO추정)	최근 개정 연혁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 교차·삼각 거래 등의 매출액을 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5조원) 소속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18) - (연간) 545 (누적) 2,180	('14) 중소기업 과세 완화: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제외
신고세액공제 축소	신고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함(현행 7%→18년 5%→19년 3%)	('18) 450 (연간) 1,210 (누적) 6,050	('17) 공제율:10%→7%

♣ 개별소비세법

(단위 : 억원)

안 건	개정 내용	세수효과 (NABO추정)	최근 개정 연혁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 인상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6원 인상(2018년 4월부터 적용)	('18) - (연간) 4,885 (누적) 24,427	('14.7) 과세전환(17~19원/kg) ('15.7) 22~24원/kg) ('16.2) 21~27원/kg) ('17.4) 27~33원/kg)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 분야 포함)

(단위 : 억원)

안 건	개정 내용	세수효과 (NABO추정)	최근 개정 연혁
법인세율 조정	3,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 25% 신설 현행:10%, 20%, 22% 개정:10%, 20%, 22%, 25%	('18) 1,859 (연간) 21,111 (누적) 84,446	('12) 2억원 이하/2억원~200억원/200억원 초과:10%/20%/22%초과
중소기업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신규가입자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세제공제 신설	('18) - (연간) -1,177 (누적) -4,708	('12) 신설 (17)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우대 공제율(100%)도입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일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단위:만원) 중소기업(2년간) 중견(2년간) 대기업(1년간) 상시 근로자 700 500 - 청년 정규직 1,000 700 300 - 수도권외 지역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10% 가산	('18) - (연간) -6,355 (누적) -25,42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7) 공제율 인상:중소+2%p, 중견+1%p - 청년고용증대세제 (17) 공제율 인상: 대기업 200~300만원 중견 500~700만원 중소 500~1,000만원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	-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배당 및 토지투자를 기업 소득 사용대상에서 제외, 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를 확대) - 투자:임금증가:배당:상생 가중치 1:1.5:0.5:1→1:1.5:0.3로 변경	추정곤란	('15) 신설 (17) 배당가중치 하향(1→0.5), 임금증가 가중치 상향(1→1.5)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한도신설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의 감면한도 1억원을 신설하되,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 축소	('18) - (연간) 2,505 (누적) 10,020	('16) 적용대상 추가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17) 성실사업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10%) 신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조정	- 신성장 R&D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중소기업 30%/그외 최대 30%→중소 및 코스닥 상장 중견 최대 40%/기타 동일 - 대기업 일반 R&D 세액 공제율:당기분1~3%→0~2%, 증가분 30%→25%	('18) - (연간) 978 (누적) 3,820	- 대상확대:(13)중견기업 추가 - 대기업 공제율(당기분) 축소: (11) 3~6% (14) 3~4% (15) 2~3% (17) 1~3%
생산성향상시설·안전 설비시설 등 투자세액 공제 축소	대기업 공제율을 3%이하 1%로, 중견기업 공제율을 5%에서 3%로 인하	('18) - (연간) 3,862 (누적) 15,446	('14) 환경보전시설 기업규모별 공제율 차등 (15) 생산성향상시설 중견기업 추가 (17) 안전설비시설투자 대상 내진보강 설비 추가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분야 포함)

(단위 : 억원)

안 건	개정 내용	세수효과 (NABO추정)	최근 개정 연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19년 시행)	추정곤란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2년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8/108→9/109)	('18) -585 (연간) -741 (누적) -3,705	('14) 공제대상 매입한도(50~30%) 신설 (15.7) 개인 음식점 한도 상향(60~45%) (16.7) 법인사업자 한도 인상(35%)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현행 9/109→개정 10/110)	('18) -277 (연간) -351 (누적) -1,753	-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¹⁾	-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연장 - 영유아용 기저귀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	-

주 : 1. ()는 시행연월

1)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경우, 일몰연장법안은 세수변동이 없음.



『신경 끄기의 기술』

“무한 긍정만을 강요하던 기존의 자기개발서는 잊어라!”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법.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루언서 마크 맨슨은 『신경끄기의 기술』을 통해, 기존의 자기개발서를 뒤집는 신선한 패러다임을 선보인다. 무조건 믿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특별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앞 뒤 따지지 않는 긍정은 오히려 독이라는 것이다. 때론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적게 신경 써야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최고의 문제작으로 꼽히는 『신경 끄기의 기술』은 수많은 선택지와 기회비용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뜻밖의 깨달음을 전한다. 출간 직후 단숨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15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2017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뽑혔다. 『CNN』, 『타임』, 『포브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수많은 언론들이 극찬했으며, 각 분야 유명 인사들의 서평 또한 쏟아졌다.



『언어의 온도』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언어에는 따뜻함과 차가움, 적당한 온기 등 나름의 온도가 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기도 하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으로 위안을 얻는다. 이렇듯 ‘언어’는 한순간 나의 마음을 끄꽂 열리기도, 그 끄꽂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기도 한다.

『언어의 온도』의 저자 이기주는 옛날고 기록하는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이다. 그는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몸살 버릇이 발동한다고 고백한다. 이 책은 저자가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우래, 그런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농밀하게 담아 낸 것이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한 뜨거운 조언들! 어른이 처음인 당신을 위한 단단한 위로들

“어른이 되어보니 세상은 냉담한 곳이었다.” 김수현은 책을 펴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 부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평범한 이질조차 기회가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한 갑과 을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토록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인생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답게 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 수 있도록, 진짜 ‘나’로 살기위해 우리가 한번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을 수록했다. 길을 잃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찾고자 하는 어린아이를 위한 책, 밥벌이와 어른살이에 지친 모든 현대인에게 이 책을 바친다.

햇살보다 밝은, 아이들의 웃음들!

아이들이 해맑게 웃음짓는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순간이 것 같아요!
분수대 사이를 뛰노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다가오는 여름 무더위를 싸악 날리세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주무관 우성한



아들아~ 잘하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

영주교육지청 주무관 김 정 희

요즘 고민은?

음.....

앞으로의 고민은?

음.....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 아이들과 가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겠지만
무엇하나 정해진 것 없는 삶을
스스로 헤쳐 나가기 위해
이제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듯 하다.

내일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고민

나 자신에 대한 고민

친구에 대한 고민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제한이 없는 걱정들...

그러나

답은 이미 있다.

그 고민들 자체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겠지만

부딪히고 깨져보는 것도

나 자신을 가꾸는 일이고

나 자신을 더 빛나게 만들어 과정임을

잊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멋진 남자가 되어 가는 중이란다.

아들아~

잘하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

파이팅!!

아침에 보이는 소리

경산중학교 주무관 윤 현 미

십분만 더... 자고 싶은데
날 깨우는 자명종 소리
어느새 내 눈앞에 있고

부엌에서
엄마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는
내 옆에 와 있다

동생이 머리 말리는 소리는
내 뒤에서 귀찮게 한다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언제나 아침이면
내가 보는 소리들
내게 보이는 소리들

소리가 따뜻하게 나를 보고 있다
가족들이 나를 감싸고 보고 있다



여름철 걸리기 쉬운 질병

8월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6월에 열사병지수가 '매우 위험'을 기록하면서 전국 대부분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폭염으로 기력이 쇠하거나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에는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 등 고단백 영양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밤잠을 설치면서 신체 리듬이 깨지게 되고, 피로를 풀지 못해 기력저하, 무기력증, 각종 감염질환, 온열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여름철 자녀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과 대책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청결에 힘써야겠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냉방병

가장 흔한 증상은 여름 감기와 같은 두통, 무기력, 몸살, 재채기, 콧물 등의 상기도 감염 증상 및 복통, 설사 등의 위장 증상입니다. 냉방병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지나친 냉방으로 인한 심한 실내외의 온도차를 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큰 온도 차이에 노출되게 되면 인체의 자율신경 기능이 부조화 되어 냉방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냉방병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냉방환경 개선입니다. 우선 실내외 온도차를 5~6°C 이내로 하고 찬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긴 소매의 옷을 준비해 체온을 조절하도록 하며, 에어컨은 1시간 마다 환기하고, 공기를 순환시켜서 실내 공기의 질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종 세균의 서식처인 에어컨 내부에 쌓인 먼지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에 청결 유지가 중요하데, 적어도 2주에 한번 씩 필터도 청소하고 교체해 주는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더운 한낮을 피해 바깥

공기를 쬐고, 가벼운 산책이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일본뇌염 주의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6월 29일 발령된 가운데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자인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빨간집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모기에 물린 사람의 약 95%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중 약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방충망 설치와 예방접종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경우 긴 소매·긴 바지·모기기피제를 이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모기는 땀으로 분비된 지방산과 젖산에 이끌려 날아들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취침전 반드시 샤워하도록 합니다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전화 053)805-3981 팩스 053)805-3989 www.gbe.or.kr